

##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09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급변하고 있고 업계의 판도가 재편되는 와중에 지난 일년간 사업장 정상운영을 위해 노심초사하셨을 대표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 존경하는 조합원 대표님!

대표님이 익히 아시다시피 지난 몇년간 우리조합은 내우외환의 격변을 겪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합조직 재편과정에서 일년여 가까운 세월동안 진통을 겪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소각산업은 이제 구시대유물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대표님들의 마음을 한층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업계는 신속하게 조합을 정비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난국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면서 업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제 2011년 신묘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간소각시설 운영 방안”이라는 대안을 우리 스스로가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환골탈태를 위한 만발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친애하는 조합원 대표님!

2011년 조합에서는 3가지 목표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추진해온 법과 제도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조합에서는 업계가 가야 할 길을 찾고자 무던히 많은 시도를 하였으며 그중에서 첩경은 단연 법과 제도에서 보장받는 길을 찾는 것 이었습니다. 2011년은 그동안 제·개정을 추진해 온 법과 제도가 모두 발효되는 해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시스템의 전면 적용, 민간소각시설의 에너지화시설 인정, 산업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 인정, 산업폐기물의 RPS 5% 인정, 혼합건설폐기물의 5%기준 적용, 3자계약 지침시행, 재활용허가제 전환에 따른 기준강화, 시멘트소성로의 자율협약기준 법제화 등 우리업계의 생존과 직결되는 법률과 제도가 모두 발효 됩니다.

이 법과 제도들은 발효는 되나 우리업계가 또다시 현장에서 확인하고 생취해야 하는 것들인 만큼 2011년에는 조합사업의 60% 이상을 법·제도기반 확보사업에 중점 편성하여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생산을 위한 소각물량의 안정적인 기틀 마련입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열은 이제 폐자원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명실상 부하게 자리매김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적으로 안정적인 폐기물을 공급 받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소각물량 잠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던 시멘트 소성로, 제지업체, 수도권매립지, 고형연료업체 등이 2010년에 다양한 주변여건으로 상당한 침체를 겪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소각업계의 물량이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1년에도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정부의 고형연료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어 물동량 흐름의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하수슬러지의 조합원사 연계처리 또한 업계 물량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단기적 물량확보와 병행하여 지자체 생활폐기물을 우리업체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반영구적인 물량 확보 채널을 구축하는데 주력코자하며 동 사업을 2011년 역점사업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셋째, 조합원들의 조합운영비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조합태동 만1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합운영비에 의존하는 조합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소수정예로 슬림화한 조합조직을 운영하여 지출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공동구매사업과 폐자원수입사업 등을 통한 수익사업 극대화로 수입예산을 증대하여 2012년 예산부터는 조합운영비 인하 원년을 기필코 달성하므로서 조합원의 부담을 더는 한편 조합운영비가 부담되어 가입을 망설이던 업체들의 조합가입 문호까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사 대표님들!

지난 2년간의 이사장 역할수행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다만 그것은 내년에 맺을 결실을 위해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준 기간이었습니다. 모쪼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다시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대표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사업장에 번영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 12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이 사 장  배상